

“카드 수수료율 낮춰라” 광주 식당업주 700여명 상경 시위

18일 직장인 ‘점심 대란’ 오나

서울서 10만 결의대회... 소상공인 100만명 서명운동도

영세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외식업주들은 오는 18일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자칫 직장인 점심대란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등에 따르면 한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오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범 외식인 10만 결의대회’가 열린다. 광주지역 외식업주 700여명도 이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회원 42만명을 대표해 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추면 수수료 비용 절감액이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2.7% 수준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1.6~1.9%, 백화점 음식점 2.0~2.3%, 골프장 등 사치업종 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음식점이 사치성 골프장보다 카드 수수료를 2배 가까이 내는 셈이다.

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엄철승 교육부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인건비·식자재료 인상에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음식점 수수료가 골프장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국 상인들을 상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카드 수수료 반발이 확산하자 카드사들은 단계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조치를 내놓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전통시장 가맹점의 경우 2.0~2.2%에서 1.6~1.8%로, 기타 중소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올해 5월부터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 평균 1억 2000만원 미만으로 낮췄고,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매출액 1억 2000만원 이상의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전히 2.5~3.5%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 측은 “특히 골프장 등 사치업종에는 1.5%의 수수료를 적용해 음식점이나 이·미용 등 생계형 업종의 절반만 받고 있다”며 “이는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약탐지 이렇게” 지난 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광주본부세관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세관학교에 참석한 초등학교생들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마약류를 적발하는 시연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 본부세관 제공>

초등학생 30명 출입국 현장 체험

광주본부세관, 무안공항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지난 8일 어린이세관학교 2회차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3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어린이세관학교 학생들은 세관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검역원의 협조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하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정과 X-ray 검색기 등 최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한 업무처리 과정을 듣고 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에서 보유한 마약탐지견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마약류를 정확하게 적발하는 시연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어린이세관학교에서는 기자 체험, 다문화체험, 상황극체험을 통해 어린이에게 좀더 친근한 세관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 만 정상가동

광주·전남 107개 업체 조사
전남 4개월 연속 하락 ‘심각’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4곳만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지역 중소기업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정상가동업체 비율은 40.3%로, 4개월 연속 하락

했다. 정상가동업체는 가동율이 80%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지난 4월 44.3%였던 정상가동업체 비율은 5월 43.4%, 6월 43.2%, 7월 42.7%, 8월 40.3%로 하락, 5개월 사이에 4.0%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가동률은 70.8%로 전달(70.1%)보다 0.7%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정상가동률 80%를 밑돌

고 전국 평균가동률 72.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71.2%로 전달(68.8%)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남은 4개월째 하락했다. 4월 75.0%였던 가동률은 6월 73.5%, 7월 71.9%, 8월 70.1%로 5개월새 4.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68.9%→69.7%)은 상승, 중기업(74.8%→73.3%)은 하락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유럽발 금융위기와 하계휴가에 의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정상가동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사업구조 개편... “4조 지원안 거부”

“6조원 달라” 정부 압박

정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농협중앙회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이하 검토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수용 불가’ 입

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당초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신규투자사업을 1조8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항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은 “소매유통, 농자재 및 생활물자 부문이 축소될 경우 농산물 판

매 확대 및 영농비 부담 경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농협은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을 생명보험은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250%로 축소 조정할 데 대해 “(농협이) 요구한 것은 업계 평균 수준이고 설립초기 농협보험의 보험시장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교육지원사업 및 배당을 축소하기 위한 완충성 자금을 3200억원만 인정하고 430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농협은 불만을 드러냈다.

농협은 정부안대로라면 완충성 자본 부족에 따른 추가 차입으로 교육지원부분 적자가 심화되고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및 조항에 대한 정상배당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조원 정부 지원규모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율 정부가 지원토록 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농협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규모 4조원은 농협의 성공적인 사업구조개편과 정부 재정 수준 등을 감안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없는 사업은 삭감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의 “공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형뉴스

진곡산단 양도세 감면 세무설명회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최근 광주도시개발공사에서 광주 진곡 산단에 농지가 편입된 약 50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세무설명회를 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그 편입 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감면세액 또한 1인당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 진곡 산단에 편입된 8년 이상 재경 농지’의 경우 전액 감면되는 경우와 일부 감면이 되는 경우, 전액 감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진곡산단 관련 세무상담팀’을 편성해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 진곡 산단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납세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신청할 경우 8년 자경 등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 검증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아기술공사·전남대 산학협력 MOU 체결

전남지역 중견 기업인 동아기술공사는 지난 7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업체 인사 초청 세미나 및 특별 강연, 산학협업체 구성,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홍석대 동아기술공사 사장과 조동원 전남대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들이 현장 견학 및 인턴십 등의 연계활동을 함으로써 전공지식의 현업 활용에 대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또복권 (제462회)						
당첨번호					2등번호	
3	20	24	32	37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483,559,297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0,719,976			39	
3	5개 숫자 일치	1,418,996			1,394	
4	4개 숫자 일치	50,000			67,106	
5	3개 숫자 일치	5,000			1,096,569	

제1회 자평(子平) 청소년 미술공모전

- 참가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중학생 (1학년~3학년까지)
- 접수기간 | 2011. 10. 1 (토) ~ 2011. 10. 31 (월)
- 작품주제 | 아래의 4개 주제 중 선택(1인 2작품 이내 포함)
 - 주제 1 : 아름다운 봉사 활동
 - 주제 2 : 조선대학교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체의 경치 등)
 - 주제 3 : 미래의 나의 꿈
 - 주제 4 : 내가 가 본 치과
- 제출규격 | 8절 도화지 (그림 도구 제한없음)
- 참가비 | 무료
- 응모양식 | 그림 뒷면에 간단한 작품 설명과 학교, 학년, 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출품자 사진과 함께 제출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실 김수관 ☎ 010-6540-5960 남선영

구분	시상	대상자	
		개	인
대상	표창장 및 장학금 50만원	1명	
금상	표창장 및 장학금 20만원	1명	
은상	표창장 및 장학금 10만원	2명	
동상	표창장 및 장학금 5만원	6명	
참가상	소정의 기념품 제공	선착순 00명	

- 심사및발표 | 미술전문가에게 심사 의뢰하여 작품을 1차 선정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대학에 전시할. * 기타 문의 사항은 남선영 ☎ 010-6540-5960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관 | 자평(子平) 김수관

제1회 자평(子平) 달력 사진공모전

- 참가대상 | 대학(원)생, 일반 시민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
- 접수기간 | 2011. 10. 1 (토) ~ 2011. 10. 31 (월)
- 소재 |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전경
- 공모내용 | 제한이나 구분 없이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다양한 사진
- 공무분야 및 규격 |

구분	내용
소재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전경
작품제출수	1인 최대 5cut
제출규격	·작품 사진출력물(규격: 20.3cm×25.4cm, 제작원본 해상 300dpi 이상) ·작품파일CD-R or USB(JPG 및 AI파일 2가지 모두 제출)
제한사항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로 합성 가능 (당선 시, 합성 원본 제출,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실 김수관 ☎ 010-6540-5960 남선영

구분	시상	대상자	
		개	인
대상	50만원	1명	
금상	30만원	1명	
은상	20만원	1명	
동상	10만원	3명	

- 심사및발표 | 자체 내부 심사 및 11월 초 발표 * 기타 문의 사항은 남선영 ☎ 010-6540-5960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관 | 자평(子平) 김수관